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0월 4일 (제81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에배 워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뇌에 보약!

뇌는 닳아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치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를 많이 쓰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접해서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게 하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방법이다. 아인슈타인이 뇌의 5%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과연 뇌를 얼마나 사용할까?

내가 권장하고 싶은 뇌 건강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싶다. 그 하나는 매일 글을 쓰는 것이다. 나는 매일 일기를 쓰고, 내 마음을 시로 적는다. 그것이 뇌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하겠지만, 일기를 쓰면 그날 하루 작동했던 뇌의 각 부위가 교류하면서 뇌 전체가 활발해진다는 검증된 보고가 있고, 시를 적는 것 역시 다양한 구사력을 찾는 것이니 뇌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성경과 책읽기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그것도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뇌에 아주 좋다.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 뇌의 신경 전달 회로인 시냅스가 발달하여 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상고한다면 뇌가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또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걷기다. 걷는 것과 뇌 건강은 상당한 연관이 있다. 유산소 운동인 걷기가 몸을 좋게도 하지만, 뇌를 커지게 한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줄어드는데, 걷는 것만으로 줄어드는 뇌를 막을 수 있다하니 하루 중 잠깐 틈을 내어 걸어보는 것이 좋겠다.

오늘 내가 권하는 방법들은 어려운 일이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낳는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여 치매 없는 건강한 뇌를 만들자.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라

물 폭탄 세례로 무너져버린 단상 천정의 흥물스런 천막 아래서 운동장을 내려다 보니 모든 음향장비는 철수 중이었고, 안 내를 담당하는 봉사자들은 군데군데 등글게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다 목사님이 이곳에서 집회를 강행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이 터졌다. 환자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카메라가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고 촬영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다 단상 앞에 줄지어 앉고 있었다. 목사님이 비에 상관없이 야외운동장 집회를 강행하실 거라는 점에는 추호의 의심이 없었으나 저렇게 모여드는 성도들을 보니 비가 온다고, 위기가 온다고, 문제가 있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결코 지도자가 취할 자세가 아님을 깨닫는다.

가 되고, 많은 성도들 또한 이 집회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고, 앰프장비가 없다고 이 집회를 포기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실패해놓고 짚길로 가는 자를 어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왜 이 시대, 이 역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진실의 결핍이요,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편에 서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님께서는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로 위로하고 계셨다. 그러나 이것은 이 격전의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서막에 불과했다. 장소를 다시 교회로 옮겨 집회가 계속되었다. 아침에는 대통령을 만나고 바로 이어 세미나, 그리고 저녁 야외집회에 이어 교회집회까지 하루에만 4번의 설교로 목사님은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는 강행군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기에 목사님은 혼신을 다해 설교하고 또 설교하셨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넘치도록 위로해주셨다.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가 고침 받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당뇨 및 신장병으로 앓도 못보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 자매가 올라왔는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코스타리카 알라후엘라(Alajuela) 집회 광경

신기하게도 비가 멈추자 목사님이 운동장에 도착하셨다. 왕(Jose A. Wong) 목사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면구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목사님은 단상에 오르시지 않으시고 성도들 가까이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육성으로 설교를 시작하셨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운동장 전체를 울리듯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이 운동장 집회를 두고 기도해왔습니다. 어제도 이곳에서 집회를 가졌고, 오늘까지 이곳에서 집회를 하기로 광고

세미나가 끝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찾아왔던 성도가 있었다. 그 때 목사님은 바로 숙소로 떠나시며 저녁집회에 와서 안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성도, 마리아 살라스(Maria Salas)가 줄지어 나오다가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기 시작했다.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앞이 잘 보이지 않던 마리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품에 안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위기 가운데 육성으로 최선을 다해 설교하신 목사님을 하

같던 여인은 안수를 받고는 바로 얼굴에 화색이 돌며 앞이 보인다고 소리쳤다.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비록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넘치는 위로와 보상으로 축복해주신다.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비바람을 멈추고 육성으로 설교하셨다



병어리 어머니가 고침을 받아 눈물로 기뻐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20:1~20)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다

사랑의 정의는 다양하나, 저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아내가 질색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색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기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 중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20:3~5)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상숭배 하는 것이 얼마나 싫으신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한다”(출20:5).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증거판을 깨트려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들이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에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몰락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왕상11:11).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후대에 나라가 찢기었고, 솔로몬의 군대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 지파를 규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숭배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놓고 빌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상에 대한 제사가 늘 걸림돌입니다. 더욱이 일부 교회에서는 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닌 전통이요 좋은 풍습이라고 하고 있으니 내적, 외적 갈등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답은 확실히 나옵니다. 제사를 누구에게 지냅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 지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고전10:2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곧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할아버지 귀신이 와서 먹는다.”, “할머니 귀신이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

고 죽은 조상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후로 저는 절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한 가문의 종손으로, 한 가정의 장남으로 당연히 앞서 모시던 제사를 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그 일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까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 제사 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못 들을 소리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그런 당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풀무 불에 던진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다니엘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높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6)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타협할 수 있고, 타협해야 하지만 신앙만은 아벳느고와 사드락, 메삭처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단3:16)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이는 빛과 어두움이 하나 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명절 때면 이 설교를 했습니다. 행여 부모 눈치 보느라, 모처럼 가족이 다 모인 날 시끄러운 게 싫어서 적당히 타협할까봐 각인시키기 위

해서입니다. 가족 눈 밖에 나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은 살아생전에 잘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

20:12)고 제 5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묘 자리 잘 잡고, 제사상 높게 차리는 것이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 중의 최고의 효도는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최고의 효도요, 그 분들을 가장 잘 모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만 자신 있게 최고의 효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언행심사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엉망이라면, 본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위에 덕이 쌓인다면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 구원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추석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날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다

레위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屠戮)하라 하셨느니라”(출32:27)고 하였습니다. 우상숭배 한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 모세의 말을 듣고 레위사람이 죽인 숫자는 3천 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각 사람이 그 형제 죽인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출32:29). 우상숭배자들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자로 전후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건강과 재물을 아울러 얻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이방 여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Message for today::

쓴 소리 vs 잔소리

신학교 설교학 시간. 강의는 신학생들의 설교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두 명씩 순서를 이뤄 발표하면 이시대 교수님의 평가와 재교육이 뒤따랐다. 발표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필자의 순서가 찾아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공교롭게도 먼저 발표한 신학생과 주제와 내용이 너무나도 겹치는 것이었다. 당혹스러웠다. 엉겁결에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단상에 올랐다. 설교 이후, 각자에 대한 총평이 이어졌다. 앞 선 신학생에 대한 평가는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바로 그것이였다. 그리고 뒤를 이은 평가는….

“내용은 없는데 목소리만 높이는 이러한 설교, 솔직히 역겹기까지 합니다!”

순간 얼굴이 ‘훅’하고 달아올랐다. 고개가 절로 떨어졌다.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강의는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어떻게 그 시간들, 그 날을, 그 주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돌아켜보면 모두 내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탓이었다. 안이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단에 서 봤다는 경험이 안일함을 초래했다. 그 대가가 비평을 넘어 질책으로 이어졌기에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참담하기만 했다.

몇 년이 지난 후, 금요일아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도 교육전도사가. 그자리가 어떤 자리던가!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입은 바짝바짝 말라갔다. 얼마나 흥분했던지 안 그래도 붉은 얼굴이 아예 홍시가 되어버렸다. 설교를 마치고 행정사무실에 들렀다. 마침 그곳에 이시대

목사님이 계셨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썬은 그토록 흥분된 마음을 급속도로 식혀버렸다. “신전도사, 자네 설교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쫓쫓쫓.”

전에도 들었던 바로 그 지적이었다. 뼈아프게 반성하여 노력에 노력을 더했다. 그런데 또 이런 평가라니...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이러한 냉정한 평가야말로 내게 더 할 수 없는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절치부심(切齒腐心), 그날의 일기엔 ‘더 이상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게 더욱 정진하리라’ 다짐하는 눈물로 얼룩졌다. 그리고 그 쓴 소리가, 그러한 다짐이 신학교 강단에 서게 했고 오늘의 메도광이 되게 했다.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하는 말들이 듣는 순간에는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껏 나를 성장케 했던 것은 ‘쓴 소리’였다. 때론 좌절감에 몸부림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무안하여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 숨고 싶은 것처럼, 폐부를 찌르고 멘탈을 뒤흔드는 ‘쓴 소리’가 필자의 마음을, 삶을 담금질하게 만들었다.

‘쓴 소리’는 관심이다. 사랑이다. 누군가 내게 건네는 ‘쓴 소리’를 단지 짜증나게 만드는 ‘잔소리’로 취급할지, 아니면 나를 바꾸고 성장케 할 기회로 삼을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하지만 역시나 그렇듯이 우리 삶은 항상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 ‘쓴 소리’와 ‘잔소리’, 당신의 선택은?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힘을 주세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의 경영 신념의 많은 것들을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술회하기도 합니다.

어린 웰치는 말을 더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말을 더듬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잭 웰치는 상심해서 집에 들어와 자기 방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이 때면 어김없이 어머니는 다가와 잭 웰치의 어깨를 도닥이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네가 말을 더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이지. 너의 똑똑한 머리를 네 혀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더듬는 거야. 그러니 창피해 하거나 낙심할 것 없단다.”

잭 웰치는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어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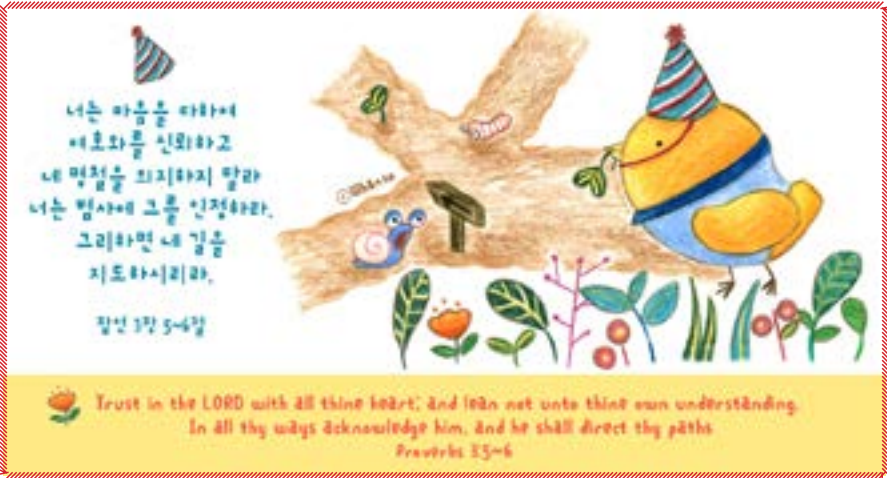
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 설교 죽 췌어.” 설교가 잘 안 풀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가끔 죽도 맛있지요.”라고 응수해줬습니다. 설교를 잘못해서 어깨가 축 처져 있던 목사님은 아내의 말에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명설교자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힘을 주세요.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고달파하는 아내에게,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투덜대는 자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사회에, 이웃에 힘을 주세요. 이 세월에 쫓겨 로템나무 아래 숨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힘겨워 하는 이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16:24).

예수중심편집실



::신앙논객::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교회 밖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일에배 잘 지키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제 미래를 위해 쓰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제 성인이 되어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에 발을 딛고 이리저리 차이며 고군분투하고 청년들이 털어놓는 고민입니다. 누군가 대표기도를 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일까요? 앞서 청년들의 말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경쟁에서 앞서고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스펙을 쌓거나 번듯한 직장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높은 지위를 누리기 전까지는 날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한들, 우리보다 더 박식하고 더 부유하며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에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이나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요구하고는 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나쁘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해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은 그 자체로 정말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닌, 세상의 요구에 맞추는 장신구들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타협할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작 세상을 이기는 무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5:4-5). 하나님은 성

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싸우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하지 않는 것,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모이기에 힘쓰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무기들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여겼던, 그러나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부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신혁주
blessedmic@naver.com



귀를 기울이세요

눈물이란 기쁨 때나 슬픔 때 발생하는 솔직한 감정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 책임자인 빌 프레이 박사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 중 하나가 덜 울기 때문이며 눈물에는 스트레스를 받아 체내에 축적된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데, 이 물질이 울음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면 면역 기능이 높아지며 뇌와 근육에 산소 공급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난 후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도 있을뿐더러 의학적으로 이런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까. 이렇듯 눈물은 웃음처럼 건강의 명약입니다.

하지만 허구한 날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할 때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측은지심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친지나 가족을 위해서, 같은 교구나 구역의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청할 때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아버지 된 마음으로 자식이 눈물을 흘려가며 간청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 자식의 청을 빨리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히든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눈물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시편39:12중).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목표지향적인 삶

요즘 들어, 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살던 시절에는 시도 때도 없이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부정적인 소리만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그것이 반드시 고쳐야 할 첫 번째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아주 사소한 일부터 감사하며 살기로 매일 나를 다잡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몰랐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분에 넘치는 축복이며, 나의 노력의 정도와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이다. 불평을 멈추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며 살고 있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강의를 하고, 구하지 못하는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물질의 복도 더해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축복까지 내려주셨다. 돌이켜보니 이전부터 있었던 내 주위의 사

람들, 나의 일들, 나의 학업들, 나의 생활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생겨난 것들이었다. 감사한 순간에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발에 감추어둔 보화를 다루듯이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하였다(마13:44). 대외적으로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겠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심을 매일 아침 다지고 또 다졌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나에게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지금, 여기에 안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애를 쓴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과거의 부정적인 습관들을 털어내고 오직 쫓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념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

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빌 3:13~14)는 말씀을 따라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다보니 나태해지거나 무기력해질 틈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끼고 가꾸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복이 복인 줄 알아야 진정한 복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더 전진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일 것이다. 넘치는 복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 멀리 보이는 쫓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싶다. 지친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할렐루야!

전훈지
ppjee@hanmail.net

약점을 강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맑고 차가운 공기를 먹고 자라는 발칸산맥의 장미는 어느 지대에서 자라는 장미보다 향기가 진하고 깊은데, 그 장미 중에서도 반드시 가장 출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만장미로 만들어야 가장 향기로운 향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다 곤하게 자는 시간에 홀로 깨어 고통 속에서 향기를 품기는 장미’, 그 장미에게 가장 진한 향기를 준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시련’이며 ‘아픔’입니다. 왕자 세종은 어린 시절 몸이 매우 쇠약했습니다. 매일같이 약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다른 형제들처럼 말 타거나 활쏘기를 즐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다른 놀이나 운동을 즐길 수 없음을 알고 몸이 약해도 잘 할 수 있는 책읽기에 열심을 냈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태종은 두 형들에 비해 월등한 세종의 학덕을 높이 사게 되었지요.

약점을 강점으로 변모시키는 반전의 계기로 삼는 것! 그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세종대왕을 얻게 된 뒷이야기입니다. 병약하여 무술연마의 한쪽 문이 막혔지만, 한글창제와 과학입국을 주도한 성군이 되는 다른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시련은 인생에 향기를 줍니다.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후12:9~10).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김정욱 전도사
jcc0115@naver.com



Good News

‘빙점’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24세 때 심한 폐결핵으로 요양병원의 침대에서 13년간 누워서 보냈습니다. 또한 직장암과 파킨슨병, 그리고 척추골양이라는 병이 계속적으로 그녀에게 찾아와 질병이 떠나질 않았습니

다. 상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무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사히 신문사의 소설 공모전에 당선되어 42세의 늦은 나이에 작가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많은 작품을 남기고 77세로 삶을 마감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천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과 절망의 연속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

비교하지 말자

일 년 전, 우연한 계기로 고등학교 시절의 단짝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친구 내외는 보기 드문 참된 크리스천이었다. 항상 성경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경이롭게 다가왔고, 시간이 갈수록 부럽게 여겨졌다. 그리고 나의 기도제목은 나도 친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을 다하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할 무렵부터 그 친구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고 그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험에 빠졌다. 내 삶은 도저히 그 친구의 삶처럼 되기 어려워 보여 낙심하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기도

에 침기는 자세도 칭찬하시지만, 서툴고 부족한대로 나의 마음도 예쁘게 보고 계신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각자의 성품대로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인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은혜롭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비교는 비극의 시작이다. 친구와 나의 신앙을 비교하기 시작한 후부터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혼자서 겪으면서 비교하지 말아야겠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 신앙생활 뿐 만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비교는 절대 금해야 한다. “옆집 아이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옆집 남편은 이번

에 진급을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해?” 등의 수없는 비교들은 화살이 되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만다. 누군가와 비교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운 마음에 상대에 대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피차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와 희망을 나누며 부족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비교보다는 건전한 경쟁 관계를 유도하여 우리의 생활 전반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자. 불필요한 비교로 삶의 에너지를 잃지 말고, 건전한 경쟁의 마음으로 가다보면 원하고 바라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있음을 기억하자.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